



상담심리학과 09학번

최지숙 졸업생

소속 : 솔가람고등학교 (전라남도교육청)

직위 : 교원



Q1. 상담심리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진로 여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서른을 넘긴 나이에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삶에 커다란 물음표가 생겼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저를 대학이라는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Q2. 대학 시절, 상담심리사로서의 전문성은 어떻게 키워오셨나요?

대학 시절에는 방과후 수석으로 유치원과 전문상담학교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청소년상담사 3급, 전문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상담심리학에 대한 이론적 깊이를 더하려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Q3. 현장 실천 경험도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광주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7년간 근무하며 위탁교육 및 상담을 맡았고 이후 정규 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 수업, 집단상담 프로그램, 회복 탄력성 향상, 자존감 향상, 자아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상담의 실질적 효과와 복잡성을 체감하며 학생들의 삶과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Q4. 학교 외 사회활동이나 지역사회 연계도 활발히 하고 계신데요?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심리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소년자원봉사 등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여자대학교를 통해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기에 학교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선배로서 후배들과 지식을 나누는 멘토링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Q5. 지금껏 겪으신 진로 여정 중 기억에 남는 조언이나 신념이 있다면요?

가장 빠른 길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진로를 찾는 여정은 각자의 속도로,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Q6.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진심이 되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끈기'와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